

『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』 건축 설계 간이공모 심사 결과

□ 개요

- 발주기관 :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
- 공모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
- 대지위치 :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-1번지 / 6,699㎡
- 공사비 : 금3,507백만원(예정설계비 금157백만원)
- 설계기간 : 2023. 9. ~ 11. (계약 시 확정, 공휴일 포함)
- 건축물 개요
 - 용도 :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)
 - 연면적 : 920㎡ 범위 내
 - 층수 : 지상 1~4층 범위 내

□ 심사개요

- 일시 : 2023. 8. 23. (수) 10:00 ~ 17:40
- 장소 : 제주 건설회관 3층 설계공모 심사장
- 신청작품 : 22개 작품
- 심사방식 : 토론 및 투표제
- 심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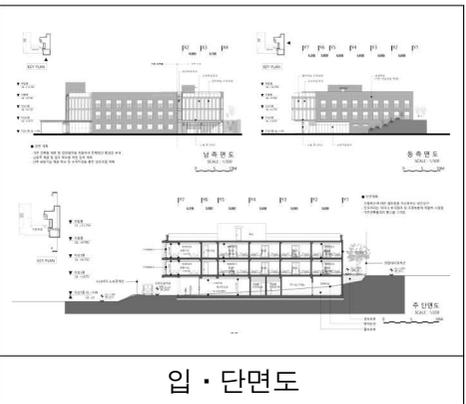
연번	성명	소속	비고
1	오종수	(주)앤드건축사사무소	심사위원장
2	고이권	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	심사위원
3	양수웅	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	
4	이규상	(주)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	
5	이용규	제주대학교	
6	김대훈	(주)건축사사무소 더건축	예비심사위원

□ 심사결과

접수번호	순위	보상금	업체명	비고
24	당선	설계용역	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(박근호) 라우드 건축사사무소(고덕수)	
1	2위	800만원	오피스틀 건축사사무소(손종남)	
38	3위	500만원	건축사사무소 QNA(현기욱) 현학건축사사무소(김학중)	
19	4위	300만원	건축사사무소 비욘드(이필영) 건축사사무소 비욘드플러스(박미선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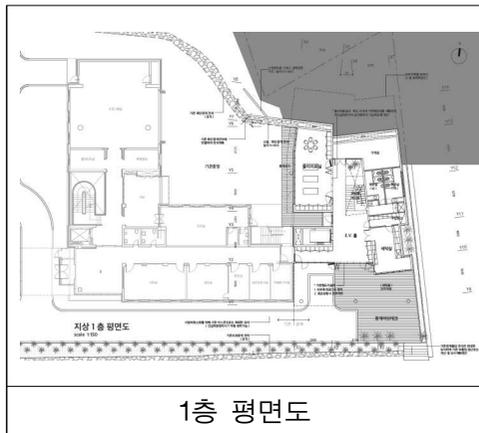
□ 당선작

구 분	심 사 평
<p>당선작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(박근효), 라우드 건축사사무소(고덕수)</p> <p>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공사 조화 속에 새로움을 담은 요양원 / 소통을 통한 위로와 공감이 있는 요양원</p> <p>증축되는 건물은 기존 요양원의 벽돌 재료와 입면태편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통일감 부여하고 기존 건물의 층고와 동선 차이를 존중하는 계획안으로 평면구성 및 동선계획을 하였다. 요구된 프로그램과 기능을 가장 합리적이게 배치하고 증축시키는 단면, 주 채광방안인 남향과 동향으로 공동거실과 침실을 배치하여 요양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우선시 하여 계획하였다.</p> <p>또한 남측의 공동거실은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관리 및 접근이 용이한 입구쪽에 배치하였고, 기존 건물의 수직주변을 활용하여 외관의 통일성 확보 및 채광조절과 시선차단의 효과를 고려하였다.</p> <p>주요 실내상황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1층의 친디마당과 2층의 원다, 옥상정원등의 자연환경은 마음의 안정감을 줄 것이며, 공동거실과 침실사이에 배회 통선을 통해 유기적인 흐름과 더불어 실외의 열린공간으로 이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본다.</p> 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능적으로 상당히 효율성 있는 평면 계획이 돋보이며,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계획임. • 기능적인 평면과 증축으로서의 디자인이 출중하였음. •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 평가되나, 복도 공간이 만들어내는 긴 동선의 문제와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배려가 요구됨. • 평면구성이 정리가 잘 되었고, 침실의 향을 고려한 점과 공동거실을 대도로에 면하여 소음에 대응한 부분이 우수함. • 전체적인 공간의 짜임새가 탁월하며, 기존 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 및 재료 구성이 긍정적인 느낌을 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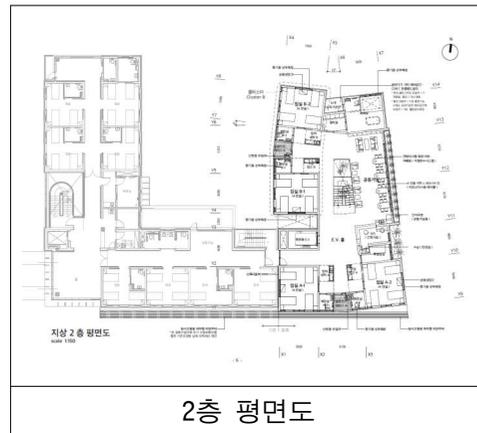


□ 입상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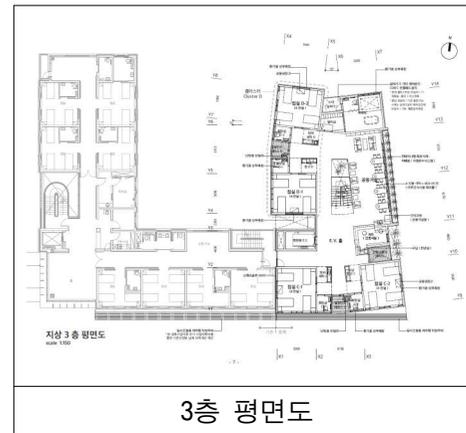
구분	심사평
<p>2등작 오피스를 건축사사무소(손종남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부 입면에 대한 고려가 돋보이고, 내부 평면의 공간감이 우수함. • 공동거실과 요양실의 클러스터링이 뛰어나며, 수평루버를 통해 기존건물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등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였음. • 서귀포의 기후(차양)를 고려한 계획 및 공간 계획이 매우 우수하며, 기능적 활용도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. • 평면 구성이나 내부 공간의 확장성은 좋으나, 구조적인 면과 소방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. • 대지의 현황을 잘 이해한 공간 구성이며, 특히 공동거실을 포함한 공용공간이 풍부한 공간감을 형성하는 계획안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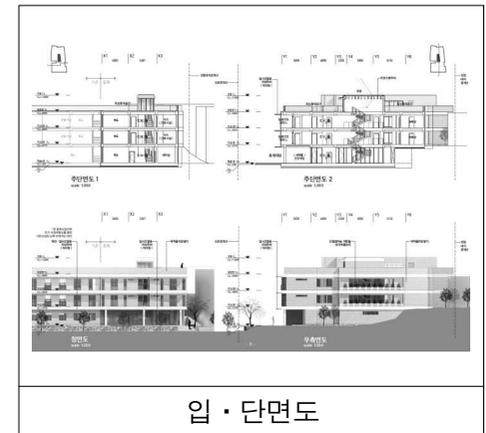
1층 평면도



2층 평면도



3층 평면도



입 · 단면도

구 분

3등작 건축사사무소 QNA(현기욱), 현학건축사사무소(김학중)

1투시도 | 외부투시도

집으로 가는 길

둘레마당을 만나면 항상 집으로 돌아가며 계속됩니다.
아련히 남아있는 기억으로도 찾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했습니다.

공복을 잡지만 복도, 복선사물들
누가봐도 여기는 병원이었습니다.

본 계획안은
여러선들과 함께 '집'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,
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.

여러선들이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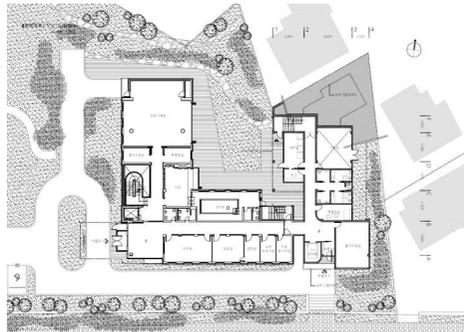


내부도 외부/2층과 3층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획공간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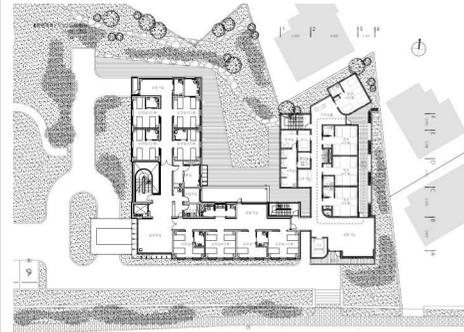


심 사 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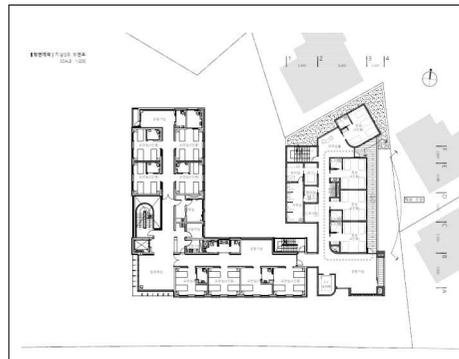
- 둘레마당의 산책로를 구성하여 건물 내/외부의 공간활용이 돋보이나, 내부 중정에 사위실이 면해 차단되는 아쉬움이 있음.
- 내부 배회로를 통해 기존건물과 달리 새로운 동선을 제안한 것이 신선하였음.
- 회유공간을 확보하는 외부공간의 계획이 매우 우수하며, 소규모 공간을 다양하게 배치한 점이 우수함.
- 둘레마당의 제안은 뛰어나나, 중정에 대한 조망 및 채광 적용이 아쉬움.
- 둘레마당 제안으로 구성된 평면의 느낌과 조형성은 뛰어나나, 둘레마당의 기능적 한계와 기존 건축물과의 사이 공간을 향한 열림이 없는 부분은 아쉬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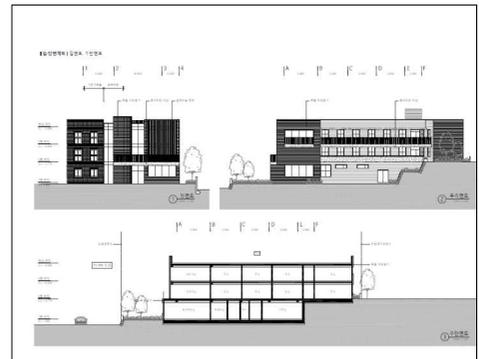
1층 평면도



2층 평면도



3층 평면도



입·단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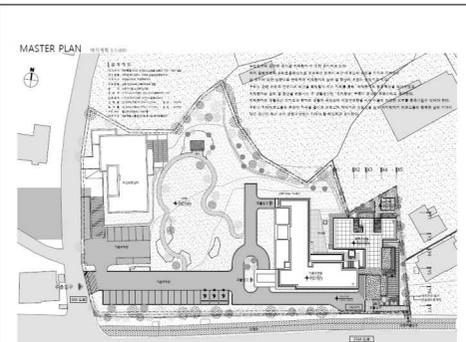
구 분

4등작 건축사사무소 비온드(이필영), 건축사사무소 비온드플러스(박미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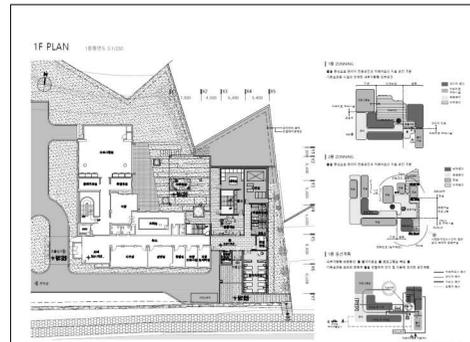


심 사 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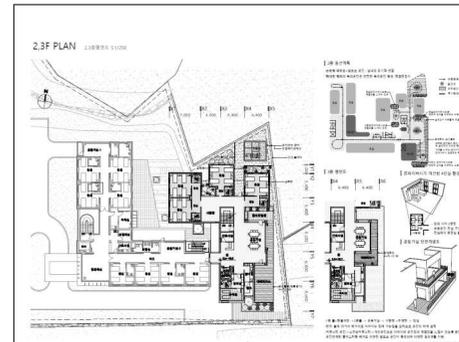
- 각 실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획의 의도는 훌륭하나, 건물 규모를 감안한 외부 공간의 활용성에 의문이 있음.
- 요양실들을 개별 매스로 처리하고, 사이 공간을 제안하여 독립적인 성격을 갖도록 한 평면계획이 우수함.
- 시설이 아닌 가장 집과 같은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.
- 기존 건축물과 연계성 및 조화가 우수하고, 침실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과 야외 테라스가 인상적임. 다만, 공사비에 대한 우려와 3층 공동거실의 면적이 다소 아쉬움.
- 분절되어 있는 침실의 구성이 주택을 닮아 좋으나, 공동거실의 기능이 3층에서 줄어들고, 남측으로의 단함은 아쉬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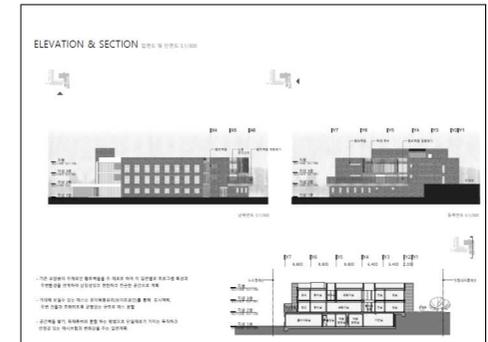
배치도



1층 평면도



2~3층 평면도



입 · 단면도